

건강 칼럼

### 한국인의 평균수명 83세, 건강수명은 65세에 머물러

**무** 병장수, 불로장생, 민수무강! 인류가 태어나서 누구나 바라는 바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1945년 해방되던 해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40세를 넘었다. 70, 80년대만 해도 회갑을 넘겨 살았으면 "내일 죽어도 호상(好喪)이다."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 60세를 넘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회갑잔치를 벌이고 정수를 축하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약 83세(82.7세)이다. 대충 평균 그 정도는 산다는 이야기다.

다만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노화로 인한 병들거나 장애 상태로 가기 직전, 즉 '건강수명'은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8세에 불과하다. 병들거나 아픈 상태로 수시로 병원에 들락거리며 약 16~17년을 더 살다 죽는다는 계산이다.

연간 외래 진료 일수는 14.7회로 OECD 평균 5.9회보다 2.6배나 많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소비액은 726.9달러(약 98만 2천 원)인데, OECD 국민 1인당 의약품 소비액은

549.2달러(약 74만 2천 원)로 의약품 소비량은 OECD 국민 1인당 소비량보다 약 1.4배 많다.

약을 훨씬 더 많이 먹고 병원에 훨씬 더 자주 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더 연장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2016년 건강수명은 73.5세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2016년 건강수명과 2022년 우리나라 건강수명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건강수명보다 약 7.7년 더 길다. 일본은 점차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2016년 건강수명은 73.5세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2016년 건강수명과 2022년 우리나라 건강수명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건강수명보다 약 7.7년 더 길다. 일본은 점차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진료 일수, 검사량, 의약품 소비



이 윤 희

(주)피스코 대표이사

량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층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일본보다 7.7년 더 병든 채로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나라는 정부의 적절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건강수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건강수명이 제자리거나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절대 없다.

건강수명이 짧으면 당사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관계된 가족 전체가 이만저만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편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원인과 사회적 배경은 꽤 많겠지만, 금방 단칼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건강수명은 의료비와도 직결된다. 건강수명이 짧을수록 의료비는 증가한다.

증가한 의료비는 가정경제에 어두운 그림자지만, 역설적이게도 의료계와 보험업계 전반에는 밝은 전망일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 사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의 증가는 국가의 성장을 저해할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그 타계책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비 소비 증가에 기여하는 노인 인구만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동력 감소가 보이지 않게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수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과제다. 따라서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등이 문제를 심각성을 깨닫고 지혜를 모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라가 산다.

### 사설

#### 사라지는 가게들

물건을 살 때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동네 문구점과 옷가게 같은 작은 가게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매업의 종말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의 온라인화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때이다. 국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 2분기는 1년 전보다 2.9% 줄었다.

2022년 2분기부터 아홉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최저기간 감소라는 기록을 세웠다. 북적이던 도심의 받거리는 활력을 잃어가고 가게 영업시간도 줄어들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면서 문구점이나 옷 가게 같은 거리의 작은 가게들까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낮에도 문을 닫은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에는 폐업한 가게들도 많다.

패션 1번지로 불리던 서울 동대문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관광객 외엔 손님이 거의 없다. 공실률은 12%에 이른다. 기존 상권이 허물어지는 사이 소비의 흐름은 온라인으로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나온다고 한다. 온라인이 오프라인 손님을 뺏는 속도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에는 국내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온라인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앞에 하나씩 있었던 문구점은 5년 새 약 1,700곳이 줄었고, 식료품점도 2천여 곳이 사라졌다.

가게가 사라지면서 일자리가 함께 없어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 6월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었고 1인 자영업자는 8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 SGC에너지 대표의 ESG 경영 실천 의지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인 SGC 에너지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SGC에너지는 지난 7월 30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은 비음마파지길 주변 해안가 일원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20여 명의 직원들은 폭염의 날씨 속에 해안가에 버려진 600kg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박준영 SGC에너지 대표는 "비음마파지길 해안가를 정화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SGC에너지는 군산시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GC에너지는 '사람의 1004 운동'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난방비 지원 및 연탄 배달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SGC E&C와 SGC솔루션 등 SGC그룹이 함께 하는 'SGC 숲 만들기'를 통해 기

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SGC에너지는 주로 전력 및 가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SGC그룹의 자회사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SGC에너지는 전력 생산, 가스 유통 및 관련 인프라 운영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는 청정 에너지 및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SGC에너지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SGC에너지는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해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해리스 부통령 손 들어준 바이든 美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니온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S) 첫날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포세이돈 신전 품은 슈퍼문



19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포세이돈 신전 뒤로 슈퍼문이 뜨고 있다. 슈퍼문은 달이 궤도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할 때(90% 이내) 발생하며 일반 보름달보다 7% 더 크고 약 16% 더 밝게 보인다.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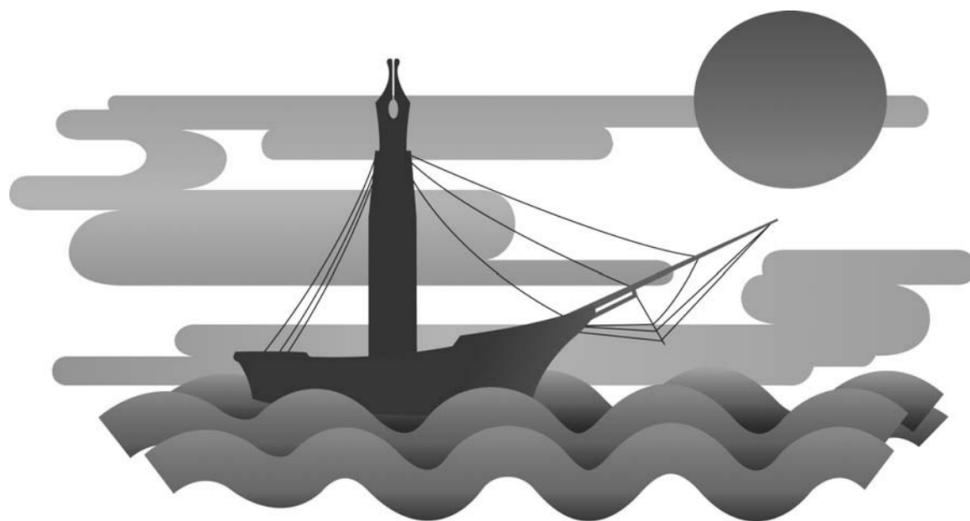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